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410호 1판 (음력 12월 13일)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박원순
"대혁신 이루겠다"
지난 2일 첫 선언

안철수
"총선 기적 대선으로"
12일 대선캠프 출범

이재명
15일 광주DJ센터서
'손가락혁명군' 출정

정운찬
"동반성장이 답이다"
19일 출판기념회

안희정
민주 대선 경선 도전
22일 출마 공식 선언

손학규
"제 3지대 건설하자"
22일 개혁회의 발대

"설 민심 잡아야 대권 잡는다"

대선주자 출마선언 다음주부터 본격화

심상정 대표도 출마 선언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1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이달 하순 설(28일)을 앞두고 야당 주자들을 중심으로 출마 선언과 대선 조직 출범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 성향 주자들은 당 개혁과 신당 창당으로 당장은 대선 행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이후 잠시 뜸했던 대권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다음주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선 주자들의 조직 출범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 서울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대혁신을 기필코 이루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뜸하던 대선주자들의 출마 움직임에 기폭제가 된 것은 오는 1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귀국이다.

우선, 지난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측근인 박선숙 의원의 1심 공판 결과를 지켜보고, 12일 대선캠프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지지자 모임인 '손가락혁명군' 출정식을 하면서 대선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오는 19일 '동반성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는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서울과 세종시를 놓고 저울질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은 오래전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지모임인 '국민주권 개혁회의' 발대식이 있는 날이어서 제 3지대론의 활성화를 견제하기 위해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전국 조직을 확산, 개헌을 고리로 한 제 3지대 건설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다음주 중반께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초기 대선구도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간 양강구도로 펼쳐진 상황에서 반 전 총장이 귀국하면 대선시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며 "설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는 '꼼수 입법'…국회는 '겉핥기 심사'

조윤선 "블랙리스트 존재 인정"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후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조 장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으나 "나는 그런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 '유턴기업 세제 지원' 수도권 특혜 눈먼 정부

최순실 정국 틈타 끼워넣기…非수도권 의원들 무성의도 한 몫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유턴기업)의 세제혜택을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광주일보 1월6일자 1·3면〉되는 과정에는 '최순실 게이트' 등의 혼란한 정국을 틈탄 정부의 끼워넣기 입법과 국회의 '겉핥기식' 법안 심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9월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했다.

기재부는 당시 70여개 항목과 290여 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을 내면서 '제안이유'와 '핵심내용'에는 '수도권 유턴기업 세제혜택 확대'라는 독소조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사전에 협의차원에서 법안을 보내 왔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다"면서 "법안 검토 때 앞부분에 있는 핵심내용만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는 '수도권 특혜'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조특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서민층을 위한 세제혜택이 주요 내용이라는 점을 노려 기재부가 수도권 특혜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용역과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제출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입법예고를 했다"며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입법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비(非)수도권 의원들의 무성의한 대응도 지적된다. 9월 제출된 정부입법안은 2개월 가까이 계류돼오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점에 달했던 11월 3일에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같은 달 7일 조세소위원회 심의에 들어갔다. 이 시점은 정치권의 관심사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기재위 소속 의원 가운데 누구 하나 수도권 특혜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기재위 내 조세소위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새누리당 이종구·이혜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박광원·이언주·송영길 의원 등 6명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세제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소위원회이다.

기재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문제의 법안을 의결하면서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여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국내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5명 가운데 274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산일보=박석호 기자 psh21@

대인예술시장·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문체부 '한국 관광 100선' 선정됐다

광주 2·전남 9·전북 6곳

대인예술시장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발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신규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신안 홍도, 완도 청산도, 강진 가우도,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 등 4곳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2·16면〉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2곳, 전남 9곳, 전북 6곳 등 호남권은 총 17곳, 수도권 24곳, 강원권 12곳, 충청권 10곳, 경상권 25곳, 제주권 12곳이 선정됐다.

올해는 한라산 등 이름 있는 관광지를 비롯해 양림동·부산 원도심 스토리투어 등 최근 2년 사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관광지들이 대거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눈으로만 즐기는 경관 관광에서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관광으로 트렌드가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문광부는 앞으로 2년 동안 국내외 여행박람회에서 한국 관광 100선 부스를 운영하고 온라인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도 제작, 옥외·지면광고, 팸투어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지원한다. 또 매년 한국관광공사가 일반인 대상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 '한국관광의 별' 후보에 자동 포함된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유일 금연아파트
봉선동 한국아델리움 3차 가보니 ▶6면

전라도 1000년 '新 湖南誌'
동아시아에서 바라본 전라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 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